

회 의 록(안)			
회의명	제14차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(KIGA) KrIGF 프로그램위원회		
일시	2016.11.25(금) 13:00~14:00	장소	KISA 서초청사 인터넷주소센터
참석자 (총 6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: 오병일(진보네트웍) 김인숙(한국소비자원), 김태은(KISDI), 박기식(ETRI), 박지환(오픈넷) (존칭생략, 위원장 제외 가나다순) 		
- 위원 : 5인 - 비위원: 1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위원: 박신영(KISA) 		

□ Action Items

- 온라인을 통한 KrIGF 프로그램 정보 습득률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개최 히스토리를 작성
 - 2016 KrIGF의 각 세션 제안자는 간략한 워크숍 결과 보고문을 작성해야함.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
- 2017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재구성

□ 2017년도 KrIGF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

- 워크숍 주제 및 패널 선정 관련 개선 방안(오병일 의장)
 - 워크숍 주제 선정 관련
 - ▶ 워크숍 제안 과정에서 프로그램위원회의 기획 역할 강화
 - ▶ 최근 주요 이슈 중심으로 주제 논의 및 업계의 적극 참여 유도
 - 워크숍 시간 관련
 - ▶ 워크숍 시간과 워크숍 수에 Trade-off 존재
 - ▶ 워크숍 주제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구성하는 방법 고려
 - ▶ 휴식 시간을 상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워크숍 시간대가 같도록 배치되어야 함
 - 트랙 구성 관련

- ▶ 다양한 주제 및 참석자를 이끌어내려면 다수 세션의 동시 진행이 불가피함
 - ▶ 동시간대에 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각 세션을 구성
- 유관 행사 참조 등을 통한 홍보 계획 마련(김태은 위원)
- 2016년도 KrIGF 홍보 관련 평가 및 의견
 - ▶ 전반적인 홍보 기간이 짧았음
 - ▶ Multi-Stakeholder에 대한 고려가 적었음
 - 트랙, 주제별로 Target audience를 고려하여 특성화된 홍보 전략 마련
 - 일회성 홍보가 아닌 연중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
 - ▶ 온라인을 통한 워크숍 공모, D-day식 홍보 등
 - 기관 및 기업체 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홍보, 연계 참석률을 강화
 - 학생 참여의 경우, 교수님들을 통해 참석률을 강화
 - ▶ 포럼 참석 후 리포트 작성 시 강의 대체 인정 등
 - 대외 홍보 혹은 공동 주관 확대의 측면에서 관련 학회(통신학회, 인터넷학회 등)에 홍보하여 참석을 유도
 - 온라인을 통해 워크숍 주제를 사전 게시하고, 커뮤니케이션 진행
 - ▶ 개방형 사전 토론 및 온·오프라인 패널 연계
 - ▶ 패널리스트(프로필)를 사전 공지하여 홍보에 사용
- 그 외 의견
- 각 세션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안자 섭외 및 준비를 해야함
 - 각 세션별 질의응답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간 온·오프라인 문자 소통 기술을 도입. 시간 절약, 익명을 통한 토론 활성화 가능
 - 온라인을 통한 KrIGF 프로그램 정보 습득률이 저조
 - ▶ 연중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공지

- ▶ ICANN Wiki처럼 KrIGF Wiki를 정의해나가면 좋을것으로 사료됨

□ 2017년도 KrIGF 개최 시기

- Global IGF 시기(11월)을 고려하여 6~9월 사이로 개최 예정
 - ▶ 6월 : 참석률을 높이기엔 적합하나 준비기간이 촉박해짐
 - ▶ 7-8월 : 준비기간이 여유로우나 휴가철과 겹침
 - ▶ 9월 : 내년도 추석 연휴가 긴 점을 고려해야 함
- 정부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참여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포럼을 개최해야함

□ 위원 재구성

- 2017년 KrIGF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위원회 재구성 필요. 기존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에 대해 재참여 여부를 의사타진 및 신규 위원 확대
- 상대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업계 사람들을 내년도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으로 추천

붙임 1. 워크숍 주제 및 패널 선정 관련 개선 방안

워크숍 주제 및 패널 선정 관련 개선 방안

1. 워크숍 주제 선정 관련 개선 방안

1) 2016 KriGF 평가 의견

- 참석률이 높았던 세션에 대한 분석

(워크숍 6) 사물인터넷 거버넌스: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정책

- ▶ 최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세션. 패널 및 사회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
- ▶ 각 패널들 사이의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

(워크숍 10) O2O 경제의 거버넌스

- ▶ 방청객과의 교감이 잘 이루어졌던 세션
- ▶ 이해당사자(기업)의 참여가 두드러짐

2) 고려사항 & 의견

- 공개적인 워크숍 제안 방식을 유지하더라도, 프로그램 위원회의 워크숍 기획 역할의 강화 필요
- 현재도 프로그램 위원회 참여단체/기관에 워크숍 제안을 독촉하고 있는데, 더 나아가 워크숍 주제를 최근 주요 이슈 중심으로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실제 기획, 섭외 등 실무를 프로그램 위원회 참여 단체가 맡는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
- 또한 현안 이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업계에서 프로그램 위원회 및 워크숍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
- 패널 선정시 주관 단위에 따라 패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,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식 혹은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패널 선정을 지원하는 방식 고려

2. 워크숍 시간

1) 2016 KriGF 평가 의견

- 각 세션 진행 시간이 짧아 심도 있는 논의가 힘들. 2시간 이상으로 세션을 구성한다면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- 패널 수에 비해 세션 시간이 비교적 짧아 발언 기회가 적었음

2) 고려사항 & 의견

- AprilGF나 IGF 역시 (기획세션이 아닌) 워크숍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의 시간을 주고 있음
- 시간이 길어지면, 워크숍 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Trade-off 가 있음
- 워크숍 주제에 따라 1시간, 1시간 30분, 2시간 등 다르게 구성하는 것 고려. (다만, 휴식 시간을 상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대의 워크숍 시간을 배치하여 서로 다른 트랙의 워크숍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음)

3. 트랙 구성

1) 2016 KriGF 평가 의견

- 전체 규모에 비해 세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동시간대에 듣고자 하는 세션 선택이 어려웠음
- 해결 방안
 - ▶ 동시간대에 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각 세션을 구성
 - ▶ 사전에 세션 관련 자료 수령이 가능하다면 유동성이 증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
2) 고려 사항 & 의견

- 동시에 여러 세션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주제에 관심있는 참석자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, 보다 다양한 주제의 세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세션 주최자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참석자를 만족시키는 측면도 있음. Trade-off 관계

-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,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참석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의 한계상 여러 세션을 동시에 운영할 수밖에 없음
- AprIGF(3~4세션 동시 운영)나 global IGF(10여 세션 동시 운영)에 비하면 적은 편임